교구 목적불사 돕는 특별분담사찰 추진

조계종, 관련 종법개정안 총무원장 발의 계획

교구중심제 공약 이행 위해
교구본사주지회의 의견 수렴
교구별 최대 2곳까지 지정
2020년 회계연도부터 책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교구중심제의 한 축인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 말 개원할 중앙종회 임시회서 관련 종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원활한 교구 목적불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법 개정 추진 계획' 을 논의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은 2018년 제5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제기됐다. 이는 승려복지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등 교구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타당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됐다.

이번 회의서는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범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측 계획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2곳까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곳은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교구특별분담금 책정은 중앙분담금위원회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사주지는 전 회계연도의 교구특별분담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교구종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으로는 개정안 시행 후 지정된 교구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교구특별분담금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책정키로 했다.

이 같은 총무원 측 계획에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처음부터 본사주지들이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었다"며 "특별분담사찰을 여러 곳으로 늘리지 않도록 2곳으로 제한한 것도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회의석상에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몇 곳까지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있었지만 총무원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종회 의안 제출 마감 전 종무회의를 거쳐 의안 제출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종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올해 주요 계획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행 스님은 앞서 지속적으로 교구중심제를 강조하며, 교구 목적사업 추진 재정 확보를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사주지회의서는 이외에 교육원이 4월 10일 봉행할 예정인 '교육불사 후원법회' 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원은 현재 종단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승가교육 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원법회를 마련했다.

교육원 측은 "국내외 석 · 박사 과정에 수학하는 학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상주교수를 비롯한 전문연구자 연구비 지원,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 연수교육 무료화 등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회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후원법회는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현황 영상과 교육불사 격려 메시지 영상 시청, 원로회의 의장 격려사, 교육불사 후원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개발원 기금 부당전출 논란 확산

원장직무대행 정현 스님 6일 공개, 개발원대책위 반발

"이사회 미승인 상태에서
7억8000만원 불법 전출"
대책위, '재정 통합' 반박

불교여성개발원의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을 사단법인인 지혜로운여성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장 직무대행 정현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원이 지난 7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지혜로운여성으로 7억8356만원을 불법 전출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현 스님은 "그동안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회계와 자금, 통장을 구분해 관리했지만 개발원 이사회 승인 없이 막대한 금원을 불법 전출했고, 지금까지도 지원금 전출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이 이사회 미승인 상태서 지혜로운여성으로 전출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억8356만여 원에 달한다.

정현 스님은 "여성불자 108인회나영108 등 불교여성개발원 사업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도 지혜로운여성 운영비 등에 사용됐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 대책위 측은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주재한 이사회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해왔다. 포교원도 매년 산하단체 지도점검을 해왔다"며 "지혜로운여성 통장을 사용한 것은 기금 안전성과 후원자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해서일 뿐, 특수목적기금으로 유용치 않고 적립해왔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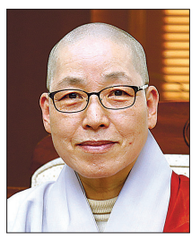
대책위 측은 또한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대표가 겸직할 뿐만 아니라 회원도 거의 동일해 재정이 통합 운영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 두 이사회에서 각각 통합된 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은 "조계종 포교단체 명의로 들어온 기금을 안전성과 세제혜택을 빌미로 사단법인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개발원장 미임명에 따라 지혜로운여성만의 이사장을 선출하며 사단법인 독립성을 강조하던 분들이, 재정의 불법전출이 드러나자 통합재정 운영이 원인임을 밝힌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설 조계종 비구니 특보에 혜도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3월 4일 임명장 전달



처음으로 신설된 조계종 총무원장 비구니 특별보좌관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혜도 스님을 비구니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 혜도 스님을 비구니 특보로 추천해주셨다.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회와 비구니계를 대표해 집행부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혜도 스님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 탄문 스님을 임명했다. 탄문 스님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구니 특보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졸업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을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탄문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용덕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100일 종회' 끝은 원장 불신임?

중앙종회 3월 14일 속개
총무원 "불법종회 거부"
출가재일 이유로 청사 폐쇄

종회 "예결산 심의 우선"
이면도로 노상 종회도 불사



지난해 12월 5일 태고종 총무원의 청사 출입 제한으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한 제316회 정기중앙종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5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노상 회의' 를 연 태고종 중앙종회가 유례없는 100일간 회기의 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회 전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긴급 발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사간동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316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할 것을 예고했다. 316회 정기회는 지난해 12월 5일 총무원 측이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면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3월 15일까지 100일간 회기를 이어갈 것을 결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회의 속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중앙종회 측에 전했다. 무엇보다 정기회 폐회에 앞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에 전달한 종회 거부 공문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성립된 바 없이 개인감정에 따라 밀어붙이려는 총무원장 탄핵종회에 총무원이 응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 안건에 관해서 총무원장 자리에서 촌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는 현재까지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의 상황에 따른 발의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본지에 "정기회는 예결산 심의가 우선이다.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도 총무원의 미온적 태도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원 측 소명에 따라 (불신임안이) 발의될지는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이처럼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월 14일 종회 속개 역시 대치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무원은 불교명절인 출가재일을 명분으로 청사를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앙종회는 대부분의 태고종 사찰이 성도재일과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종회 일정을 정하는 것은 종회의 고유권한이다. 총무원이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개인재산도 아닌 총무원 청사를 종회의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